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Total Fashion에 관한 연구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김은정* · 곽태기

세종대학교 세종패션 BK21연구원*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현대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무수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고 모든 고정관념의 경계를 해체·거부하면서 역사성과 토속성을 강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동양적 모티브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를 응용한 오리엔탈리즘이 매 시즌마다 주목받는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서구디자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도 오리엔탈리즘은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아이템이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서 2002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오리엔탈리즘 패션이 발표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Christian Dior나 Givenchy, Jean-Paul Gautier등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자신만의 패션을 표현할 때 메이크업과 헤어, 그리고 장신구로서도 이 맥락을 연결지어 선보이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일이다. 이제는 패션을 의상 하나에 국한시키지 않고 메이크업, 헤어, 악세사리 등 Total적인 접근으로 연결지어서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Total 패션은 오늘날에 의상과 더불어 메이크업, 헤어가 디자이너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Total 패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패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Total 패션은 디자이너의 작품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한 요소이며 유행의 인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디자이너들의 의상작품만을 다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리엔탈리즘을 의상과 함께 화장과 헤어스타일까지 총괄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Total 패션으로 접근하여

과거의 복식미가 그대로 재현·응용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동양적 미(美)가 과거의 재현과 응용되어 총괄적인 Total 패션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음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 패션 전문잡지를 통한 시각적 자료의 활용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오리엔탈리즘을 "Total Fashion"이라는 포커스에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오리엔탈리즘 패션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리엔탈리즘 패션을 살펴볼 때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이 재해석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Total적인 패션을 의상, 메이크업, 머리모양(Hair-Style)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동아시아권에서 중국, 일본, 한국만을 한정지어 살펴봄으로써 국한된 오리엔탈리즘 패션임을 밝힌다.

연구의 범위는 1990년대부터 2002년도까지의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나타난 Total 패션을 분석하여 나라마다의 특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본 오리엔탈리즘의 Total 패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중국복식의 치파오(旗袍)와 전통무대극인 "경극(京劇)"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의상과 화장, 머리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일본은 전통복식인 기모노와 전통 무대극인 "가부키(歌舞伎)"를 통해 한 맥락을 이어서 일본만의 독특한 전통이 고수되고 응용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조선시대의 "미인도"의 그림에 그려진 전통한복의 형태와 화장, 머리모양을 그대로 재현하고 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한국 및 중국과 일본은 각 나라의 전통성이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의 분야에서도 하나의 복식으로서 통일감을 이루었고 이를 현대패션에서 재현, 응용, 변형이 되어 현대적으로 해석되는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의 Total 패션이 탄생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고 있다.